

'백제왕궁연회' 익산 문화유산 야행

19~21일 왕궁리 유적 일원서 다채로운 야간 경관·체험·공연 등 진행

봄밤 아름다운 달빛 아래 1,400년 전 경이
롭고 신비한 백제왕궁이 그 모습을 드러내
다.

익산시가 문화재청과 함께 오는 19일부터
21일까지 3일간 '백제왕궁연회'라는 부제로
익산 백제왕궁인 왕궁리 유적 일원에서
'2024 익산 문화유산 야행'을 개최한다.

이번 야행은 문화유산인 백제왕궁을 활용
해 공연·체험·전시 등 다양한 문화향유
프로그램이 진행되며, 8야(夜)를 테마로 야
경, 야로, 야화, 야설, 야식, 야시, 야수, 야
사로 구성했다.

△지난해 전국 우수야행 선정과 백제 유 산 발굴 성과 기념 '백제왕궁연회'

'백제왕궁연회'라는 부제로 진행되는 이
번 문화유산 야행은 지난해 전국 우수 야행
에 선정된 것을 축하하고 백제 유산 발굴
성과를 기념하는 연회의 자리로 관광객을
초청한다.

지난해 익산시는 △중국과의 교류를 증명
하는 오형대포(중국 북주시대 발해동진) △
높은 기술력을 보여주는 서동생가터의 저온
저장시설 △왕도의 증거로 제시되는 익산토
성(오금산성) 등 백제 유적 발굴 분야에서
연이은 성과를 거두며, 익산이 가지는 백제
왕도의 역사적 정체성을 다시 한번 입증했
다.

△체험 프로그램 '야사' 강화 및 최태성 선생 강의 등 백제 유산 이해 도와

아울러 익산 야행의 강점인 체험 프로그
램 '야사(夜史) 강화해 광활한 백제왕궁에
활기를 불어넣을 예정이다.

백제 머리모양을 체험해 보는 백제왕궁
헤어살롱과 스튜디오, 환호하는 야경을 사
진으로 남겨보는 왕궁 달빛사진 등 10개 이
상의 신규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뿐만 아니라 관광객의 큰 호응을 얻었던
사리장엄구 만들기, 장신구체험, 연등띠우
기 등의 프로그램도 운영해 총 50여 개의
체험 프로그램이 관람의 즐거움을 더할 것
으로 기대된다.

문화유산을 쉽게 이해하고 향유할 수 있
도록 문화유산 야행의 특성을 반영한 해설
프로그램도 주목할 만하다.

건물지, 후원, 화장실 유적 등 주요 유적
장소에 백제왕궁 해설사를 다수 배치하고,
탐들이 프로그램을 해설과 연계해 백제 북



익산시가 문화재청과 함께 오는 19일부터 21일까지 3일간 '백제왕궁연회'라는 부제로 익산 백제왕궁인 왕궁리 유적 일원에서 '2024 익산 문화유산 야행'을 개최한다. (사진은 2023 야행 행사 모습)

식을 입고 즐겁게 배우는 백제왕궁 이야기
로 진행한다.

특히, '벌거벗은 한국사'로 유명한 '큰별
최태성 선생' 강의가 21일 저녁 7시에 벚꽃
주무대에서 열려 쉽고 재밌게 배우는 백제
이야기를 경험할 수 있다.

△화려한 야간경관에서 즐기는 백제왕궁 과 눈을 땔 수 없는 다양한 행사

1년 중 단 3일 4만여 명의 너른 백제왕궁
이 빛으로 환하게 빛나는 환상적이고 다채
로운 야경은 탄성을 자아낸다.

백제왕궁에 대한 해설을 담은 주제관, 후
원의 왕궁정원원터 등 곳곳을 수놓은 경관
조명과 함께 한지등 공예는 잊지 못할 인생
사진을 제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3일 동안 매일 저녁 10시에 진행
될 소원등 날리기는 익산 문화유산 야행의
상징으로 자리 잡으며 방문객의 기대를 모
으고 있다.

20일 16시에는 대한민국 농악축제가 익산
야행과 연계해 진행될 예정이고, 연이어 무
형유산의 다양한 공연이 백제왕궁에서 펼쳐
진다.

또한 백제의상 복식체험, 백제왕궁 박물관
야간개장, 행사장 내 세 곳 무대에서 궁중
연회 체험과 후원 버스킹, 박물관 버스킹
등이 이어져 잠시도 눈을 땔 수 없는 볼거
리를 방문객에게 제공할 계획이다.

/*익산=이재춘 기자

남원 춘향제 '사랑춤' 챌린지 이벤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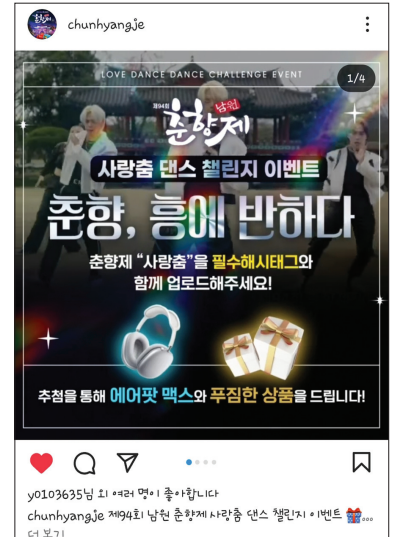
30일까지 인스타그램서 응모 가능

한국의 대표적인 축제 중 하나인 춘향제가
올해로 94회를 맞이하며, 이를 기념하기 위해
새롭고 창의적인 온라인 이벤트로, 2021년부터
활동을 시작한 보이그룹 디오스가 춘향제의
공식 홍보 음악으로 '사랑'을 리메이크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사랑춤' 챌린지를 인스타
그램에서 시작했다.

참여 방법은 춘향제 공식 인스타그램 계정
(@chunhyangje)을 팔로우하고, 관련 게시물에
'좋아요'를 클릭한 뒤, '사랑춤' 포인트 안무
영상을 필수 해시태그와 함께 자신의 인스타
그램에 업로드 한후, 마지막으로 게시물에 참
여 완료 댓글을 남기면 응모가 완료된다.

이벤트 기간은 4월 11일부터 4월 30일까지이
며, 참여자 중 무작위로 선정된 당첨자에게는
에어팟 맥스, 애플워치, 춘향제 랜덤 기프트
박스 등 다양한 경품이 제공될 예정이다.

춘향제 조직위원회는 "이번 '사랑춤' 챌린지
를 통해 전 세대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축제의
장을 마련하고, 춘향제의 전통적인 가치와 현
대의적인 즐거움이 조화를 이루는 새로운 방식



의 홍보를 시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전주한벽문화관, 공연 라인업 주목

우수작품시리즈 라인업 공개... 클래식·재즈 등 다채롭게 진행

전주한벽문화관(관장 김철민)이 2024년 우수
작품시리즈 라인업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먼저, 5월 첫 포문을 여는 주인
공은 첼리스트 홍진호다. 홍진호는 JTBC '슈퍼
밴드'에서 우승하면서, 클래식은 물론 밴드음
악 등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선보이며 관객들
에게 큰 사랑을 받고 있다. 그는 피아니스트
최문석과 함께 전설적인 탱고 음악가 카를로스
가르셀, 아스토르 피아졸라 작품들과 그의
자작곡까지 선보일 예정이다.

이어 6월엔 2021년 소령 국제 콩쿠르의 유일
한 한국인 피아니스트이자 2022년 프랑스 최
고 권위의 톱 티보 국제 피아노 콩쿠르에서 공
동 1위에 오른 피아니스트 이혁이 함께 한다.
이혁은 깊은 감성이 느껴지는 라흐마니노프
소나타 1, 2번을 무대에 올릴 예정이다.

7월엔 한국을 대표하는 젊은 기타리스트 박
규희가 무대에 오른다. 알라바라 콩쿠르를 포
함해 총 아홉 번의 콩쿠르를 우승한 박규희는
권위 있는 벨기에 프렐탕 국제 기타 콩쿠르에
부여되는 문화재청 평가 가등급에 선정
되고 매해 수만 명이 찾는 등 명성과 위상
을 자랑하고 있다.

대표 첼리스트 12명 편성으로 공연이 펼쳐진
다.

10월, 가을과 어울리는 금관악기 무대가 기다
리고 있다. 서울대학교 교수로 재직 중인 호르
니스트 김홍백이 피아니스트 박기영과 함께
중후하지만 아름다운 음악이 돋보이는 호른의
매력으로 관객들과 만날 예정이다. 11월엔 고
음악계 최고의 프리미디나 소프라노 임선혜를
만날 수 있다. 투명하고 서정적인 음악과 변
화무쌍하고 당찬 연기력으로 세계무대에서 활
약 중인 임선혜는 이번 무대에서 피아니스트
문재원과 함께 원숙한 표현력과 다채로움이
돋보이는 프로그램으로 관객들을 매료시킬 것
이다.

마지막으로 클래식과 재즈의 절묘한 조화가
돋보이는 브랜더퍼렛이 장식한다. 색소포니
스트 브랜든 최, 드러머 조한샘, 베이스리스트
김종호, 피아니스트 최문석 조합으로 꾸며지는
이번 무대에선 연말 시즌에 어울리는 클래식
과 재즈 프로그램들로 가득 채울 예정이다.

전주문화재단 관계자는 "2022년부터 우수
프로그램을 시민들에게 선보이며 지역 문화거
점관 역할을 탄탄히 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며 "올해도 세계적인 아티스트들과 다양한 무
대를 올려 지역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 확대에
기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티켓 가격은 전석 2만원이며 인터파크에서 예
매할 수 있다. 전주시민, 공연 재관람자,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경로우대 및 학생 할인 등 다양
한 할인혜택으로 공연을 관람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전주문화재단(jf.or.kr), 전주
한벽문화관(j.or.kr) 누리집이나 전화(063-280-
7040)로 확인할 수 있다. /장은성 기자

국립전주박물관, 누리과정 연계 '문방사우를 찾아라' 운영

국립전주박물관(관장 박경도)은 누리과정
(5~7세)과 연계한 단체 교육프로그램 '문방사
우를 찾아라!'를 4월부터 7월까지 총 10회 운
영한다고 밝혔다.

이는 '서예문화' 콘텐츠를 누리과정과 연계
한 특성화 프로그램으로 어린이들이 놀이를
통해 서예문화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전시
체험형 교육으로 구성했다.

내용은 어린이박물관 캐리터인 오성과 한음

이 안내하는 전시실에서 옛사람들이 사용하던
문방사우를 찾고 이와 비슷한 요즘 물건을 알
아보는 과정으로 진행된다. 이후 전북지역 대
표 서예가를 알아보고 예술경험과 연계한 붓
글씨 쓰기 체험을 하는 과정 속에서 어린이들이
우리 지역에 대한 자긍심을 갖고 서예 문화
에 대한 관심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
다.

접수는 교육일 한 달 전부터 누리집에서 선



착순으로 예약 가능하다. 참가비는 무료며, 자
세한 내용은 국립전주박물관 누리집에서 확인
할 수 있다. /장은성 기자

익산시립예술단, 익산 브랜드 공연 '웨스트 앤 이스트'

익산시립예술단이 각고의 노력 끝에 지난해
첫선을 보인 '익산 브랜드 공연'이 올해 상·
하반기에 각각 2회씩 총 4회 공연된다.

상반기 공연은 다음 달 4일 오후 3시와 저녁
7시에 익산예술의전당 대공연장에서 화려한
막을 올리며 '익산 브랜드 공연'의 대중화 및
활성화에 나선다.

백제왕도 익산시의 '서동설화'를 기본으로
신화적 판타지를 추가하는 익산 브랜드 공연
'웨스트 앤 이스트(West & East) - 서쪽남자 &
동쪽여자'는 익산시립예술단 소속 시립합창단
과 시립무용단, 시립풍물단 등 익산시립예술단
의 3개 예술단 협업을 통해 제작한 공연이다.

익산시립풍물단 김익주 감독이 총예술감독으
로 지휘하고 익산시립합창단 노기환 지휘자가
음악감독을 맡았으며, 익산시립무용단 최석열
감독이 대본을 직접 쓰고 연출을 진행해 익산
브랜드 공연을 완성했다.

익산의 대표 브랜드 공연인 만큼 익산에서만
볼 수 있는 예술적 완성도를 갖춘 작품 제작에



'웨스트 앤 이스트' 공연 모습

노력했으며, 지역의 문화예술 자원을 토대로
하자는 의미에서 '서동'이라는 지역의 스토리
를 활용해 대중성을 함께 확보해 나간다는 취
지이다.

서동설화는 백제 제30대 왕인 무왕(武王)에
관한 이야기로 어머니가 용과 관계해 태어난
서동이 신라 진평왕의 셋째 딸 선화 공주를 아
내로 맞이하는 사연 등을 담은 설화이다.

익산시립예술단 전원이 출연하는 이 작품은
무용극을 기본으로 하는 오페라 연희 댄스컬
로 구성되며, 백제의 상징성을 모티브로 하는
무대가 펼쳐지는 등 익산 브랜드 공연에 걸맞
은 작품이라는 평가다.

익산시는 지난해 11월 브랜드 공연을 시작
으로 올해 총 4회 등 매년 상·하반기에 인바운
드 공연 관광상품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한
다는 방침이다.

앞서 익산시는 익산방문의 해에 공연이나 관
광 목적으로 찾는 국내·외 관광객들을 위해
상설 브랜드 공연이 필요하다고 보고 대표 브
랜드 공연 제작에 들어갔다. 정현을 익산시장
을 제작 추진단 단장자로 하고 3개 익산시립예
술단이 모두 참여했다.

이지원 익산예술의전당 관장은 "지난해 첫선
을 보인 후 관객들의 호평이 이어져 올해도
4회 공연을 계획하고 있다"며 "지역의 정체성
강화와 시민들의 자긍심 회복, 관광객 유치
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등 3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관람료는 전석 무료로 오는 18일 오후 2시부
터 익산예술의전당 누리집을 통해 사전 예약(1
인 4매)이 가능하며 취하운동 이상 입장이 가
능하다. /익산=이재춘 기자

한국전통문화전당, 전주음식 전국에 홍보

18~19일 서울서 관련 토크콘서트·쿠링클래스 진행

한국전통문화전당(원장 김도영)은 오는
18~19일 서울 종로구 한식문화공간 이음 지하
1층 이음홀과 2층 한식배움터에서 전주음식 관
련 토크콘서트 및 쿠링클래스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먼저, 18일에는 정혜정 전주대학교 한식조리
학과 교수의 토크 콘서트(전주음식 이야기)를
가질 예정이다.

이어 19일은 임복주 전주음식명인이 쿠링클

래스(미니리 김치 만들기)를 진행한다. 전주10
미 중 하나인 미니리를 활용한 김치 조리법을
공유하고, 계절 농산물을 홍보한다.

김도영 원장은 "전당은 한국을 대표하는 맛
의 고장이자 유네스코 음식창의도시 전주의
음식문화 진흥을 위하여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며 "한식진흥원과의 협업 프로그램
을 통해 전당과 전주음식이 대외로 알려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북자치도 어린이창의체험관, '지역사회 서비스의 날' 운영

전북자치도가 도내 소외계층 및 도서·벽지
의 아이들에게 문화서비스를 제공한다.

전북특별자치도 어린이창의체험관은 매일 돌
짜주(도서·벽지 어린이 대상), 넷째주(특수학
교 등 소외계층 대상) 수요일에 월 1회씩 '지
역사회 서비스의 날'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어린이창의체험관은 도내 특수학교와 아동복
지시설 14개 및 도서·벽지의 어린이들을 초청
해, 체험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사회서비스의
날'을 운영한다. /김재훈 기자

특히, 올해에는 지난해 접근성이 떨어져 상대
적으로 체험관 이용 실적이 저조한 3개 군(무
주·장수·순창) 지역의 어린이집·유치원·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확대해 운영할 예정이다.
지역사회 서비스의 날은 올해 초 해당 학교
로부터 신청을 받아 특수학교 5개교와 소외지
역 학교 7개교가 접수·확정돼 오는 17일부터
시작될 예정이며, 28개 상설체험과 특별체험
프로그램을 함께 제공할 계획이다. /김재훈 기자